

**3.**

**2017학년도**

**인문계열 3회차 해설**

---

## [3회차 공통문항]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월터 리프먼, 「여론」 (까치, 2012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강준만, 「미국사산책 5: 혁신주의와 '재즈시대」 (인물과 사상사, 2010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가>는 월터 리프먼의 『여론』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여론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유사환경이자 스테레오타입이며 편견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나> : 신동준,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형사정책연구, 2012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나>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국외자에 관한 뒤르켐과 베커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외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소라미,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 [공변의 변],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는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블로그의 글로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3회차 공통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객관적인 실재를 반영하지 않고 편견에 취약한 여론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점과 외국인을 국외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반응과 A시의 차별적인 외국인 범죄 방지 대책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도록 구성되었다.

###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세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가>는 월터 리프먼의 『여론』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여론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유사환경이자 스테레오타입이며 편견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국외자에 관한 뒤르켐과 베커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외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는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블로그의 글로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1>은 2015년에 발표된 통계자료로서 외국인 범죄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되었다.

이 문항의 논제는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을 비판하시오”( <표 1>을 활용하되, A시의 범죄율은 전국 범죄율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이다.

## [3회차 공통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와 <나> 각각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둘째,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

셋째, <가>와 <나>를 통해 <다>의 상황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넷째, <표 1>에 나온 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가?

■ 답안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가>와 <나>의 논지: <가>에 따르면 여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 등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들은 것들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머릿속의 그림이자 유사환경이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여론은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편견을 통해 보게끔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통합을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의 권력자들에 의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일탈자인 국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나>는 동질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구별되는 외국인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국외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가>에서는 여론이 실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스테레오타입이자 편견일 수 있음을 <나>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사회의 일탈자로 규정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가>와 <나>의 통합적 이해: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가>와 <나>를 각각 <다>에서 나타난 언론의 보도태도와 A시의 대응으로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와 <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의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다시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간주하게끔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다시 외국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킨다.

③ <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가>와 <나>에 의한 비판: <다>에 나타난 언론의 반응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하나의 살인사건을 외국인 범죄 일반의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고,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범죄 과담들과 외국인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A시의 반응은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범지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A시는 범죄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내국인의 피해만을 고려함으로써 외국인을 더욱 더 우리 사회의 국외자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④ <표 1>의 적절한 활용: <표 1>은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와 그에 근거한 A시의 대책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통계자료이다. 10만 명당 범죄피의자수로 산출되는 범죄율을 놓고 보면 조사기간 동안 내국인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을 크게 앞지르며, 외국인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는 언론보도와 그에 상응하는 A시의 대책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외국인 범죄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반응이자 대응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공통문항의 취지에 맞게 답안은 내용과 표현 면 모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둘째, 답안의 내용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셋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언어 사용이 명확한가

넷째,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좋은가

## [3회차 공통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여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편견이 내재된 정형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통합을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사회집단에 의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일탈자인 국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동질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구분되는 외국인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국외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은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일탈자이자 범죄자로 간주하게끔 만든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은 대중매체가 외국인 범죄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다루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다>에서 나타난 A시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과 SNS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반응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개별적인 사건을 외국인 전체에 의한 범죄행위로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A시의 반응 또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을 우범 지역으로 공포함으로써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A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 모두 외국인 범죄를 실제보다 과장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에 근거한 반응이자,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들을 일탈자로 규정하려는 유혹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 [3회차 계열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박희병, 돌베개, 2006, p.383-399)**

제시문 <가>는 박지원(1737-1805)의 「공작관문고자서(孔雀館文稿自序)」를 옮긴 것이다. 현대어 번역은 박희병 교수의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돌베개, 2006, 383-399면)를 따랐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글이란 것은 진실해야 하며, 진실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소재나 표현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박지원의 창작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명과 코골이에 대한 비유가 퍽 인상적이다.

이명이란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남의 귀에는 안 들리는 현상”이다. 박지원은 이 상황을 “창작자에게는 분명히 감지되지만 독자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현상”과 연결 짓고 있다. 코골이란 “남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다. 박지원은 이 상황을 “독자들에게는 다양한 의미로 들리는데 창작자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과 연관 짓고 있다.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하여 창작자의 표현의 어려움과, 독자 비평의 자립성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실한 글’을 매개로 작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글이라 하겠다.

**제시문 <나> : 정재승 교수, 『과학콘서트』 (어크로스, 2011, p.93-108)**

제시문 <나>는 정재승 교수의 『과학콘서트』(어크로스, 2011, 93-108면.)에 수록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그림에 관한 에피소드를 옮긴 것이다. 폴록은 자신이 감지한 어떤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평은 냉담했다. 그들은 폴록의 그림을 “무질서한 카오스”라고만 여긴다. 그러나 그의 꾸준한 작품 활동, 그리고 비평에 대한 반박 글을 볼 때, 그는 어떤 질서를 감지한 것이 분명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과학자들은 폴록의 그림에서 어떤 질서를 포착한다. 카오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그림 속에는 프랙털 구조가 내재하고 있음을 본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박지원이 말한 이명과 흡사한 점이 있다. ‘무언가를 들었으나 남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명의 상황’과 ‘무언가를 표현하였으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폴록의 상황’은 동일한 상황에 다름 아니다.

**제시문 <다> : 『중앙일보』 (2009.11.21. 인터뷰 기사 중)**

제시문 <다>는 한 때 회자되었던, 어떤 시인의 쓴소리를 옮긴 것이다. 해당 기사는 『중앙일보』(2009년 11월 21일)에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화되어 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시인의 시(詩)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 시인이 ‘참 미스터리한 일’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 교육청이 출제한 해당 작품의 문제에 대한 시인의 답과 교육청의 답을 비교할 수 있게끔 소개하여 두고 있다.

문학작품이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그 후로는 독자적 자생력을 지니는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그렇기에 창작자는 언제나 독자의 비평과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런데 인터뷰의 시인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남의 지적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에만 관심을 보여준다. “내가 쓴 글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작품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층적 의미가 놓여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작품의 의미를 추출하는 행위 또한 또 다른 작품의 향유 양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코골이를 통하여 작품은 다양한 소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독자가 들은 것을 “너는 이러이러한 소리를 내며 코를 골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에 대해 펄쩍 뛰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코골이 상황은 위의 시인을 연상시킨다. 작품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작품을 읽고 어떤 의미를 포착했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완고히 부정하는 것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회차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 글에 나타난 비유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자 함.
- 이 비유가 실질 현장 즉, 창작자와 비평가들의 소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고자 함.

### 논제의 구성

이명과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 연관시킬 수 있는가, 연관 과정이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

이명이 비유하는 바는 “내게는 들리는데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창작물로 환원하자면 “창작자에게는 감지되는데 독자(비평가)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현상”이다.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는 “남에게는 들리는데 내게는 들리지 않는 것”, 창작물로 환원하자면 “독자(비평가)에게는 감지되는데 창작자 자신은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명은 제시문 <나>와 연관된다. 풀록은 어떤 질서를 감지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자(비평가)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의 작품은 그저 카오스(무질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풀록이 의도한 바를 읽지 못해 생겨난 평가일 뿐, 풀록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후의 과학자들이 그가 본 것을 결국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풀록의 상황은 이명증을 앓은 아이와 유사하다. 아마 풀록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답답하다.” 이 말은 바로 이명증을 앓던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코골이는 제시문 <다>와 연관된다. 독자는 시인의 시에 어떤 의미가 흐르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시를 재해석한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들은 시인은 그런 비평을 부인한다. 그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며,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것을 어떻게 남들이 더 잘 아는 것인지 미스터리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반응은 코골이와 연관된다. 코고는 소리는 남들은 듣고 정작 코를 고는 자기는 듣지 못하는 것인데, 독자들은 다 보는 것을 자신이 보지 못했다며 화를 내는 것은 박지원의 일화 속 인물 ‘코골이’와 흡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이명을 시인의 경우에, 코골이를 풀록의 경우에 연결해서는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 얼핏 보면 가능할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보면 이 둘의 어긋남은 큼을 알게 된다. 우선, 이명과 코골이 모두 창작자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풀록이나 시인 모두와 연관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명은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점에서 [다]지문의 시인과 교육청과의 갈등과 연관 지을 수 없다. 시인의 의도가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떤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교육청이 듣고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에게 들리지 않는 이명 증세와 관련짓기 어렵게 된다. 남에게 들리는 것이기에 이는 코골이인 것이다. 그 소리를 정당히 지적하자 화를 낸 것 또한 코골이의 속성에 그대로 부합한다.

한편, 코골이는 남에게 구체적인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점에서 풀록의 경우와 연관 지을 수 없다. 풀록의 비평가들이 한 것은 풀록의 어떤 소리를 듣고 낸 반응이 아니다. 비평가들의 반응, 난해하다, 질서가 없다 등은 풀록의 소리를 듣고 의도를 나름대로 이해하여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풀록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게 무엇이냐? 너는 무슨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않느냐?’라는 반응일 뿐이다. 코골이와 연관되려면, 비평가들이 풀록의 그림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그것에 대해 조목조목 합리적인 비평을 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 제기에 풀록의 완고한 부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글에 나타난 ‘무질서하다(비평가) ↔ 질서가 있다(풀록)’의 갈등은 비평가들이 풀록의 의도를 나름의 시각으로 포착하여 해석한 결과가 아닌, 풀록의 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명 상황에 대응되는 것이다. 어렵듯하게 자연의 질서를 감지했던 것이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해명된 것은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는 아주 빠른 비평가가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의 글 마지막에 있는 ‘이명은 듣지 못할지라도’란 말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의도를 알아주는 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말인데, 과학자들의 분석은 그것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서문에 흔히 쓰는 ‘언젠가 눈 밝은 이가 나타나 이 글의 속뜻을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는 문장 등과 같은 의도라 볼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창작자의 의도가 속에서만 울리고 타인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이명이라 하고, 밖으로 나온 창작자의 소리가 독자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구체적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을 창작자가 부인하는 경우를 코골이라 한다.’가 된다.

## [3회차 계열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이명과 코골이 상황이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
- 이명을 제시문 <나>에, 코골이를 제시문 <다>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 제시문 <나>에서 이명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에서 코골이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 정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장이 정확하고, 단락이 적절한가?

## [3회차 계열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이명은 자신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남은 모르는 상황, 코골이는 남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즉, 작자가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나 독자들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명이란 병에 빗댄 것이고, 작자가 표현한 어떤 생각의 잘못,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독자가 발견하여 지적함에도 그 지적에 대해 완고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코골이에 빗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명은 제시문 <나>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풀록의 그림은 풀록의 영감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내재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 비평가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그림은 그저 '무질서'일 뿐이라고 평한다. 이 상황은 피리소리 같기도 하고 별처럼 둥글둥글하기도 한 어떤 소리를 남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가>의 아이와 흡사하다. 즉, 내게는 들리는 것이 남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코골이는 제시문 <다>의 상황과 닮았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들리듯이, 시 또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시는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지만, 자신도 모르는 다른 면모의 소리가 그 시에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소리는 시인은 듣지 못할 수 있지만, 독자나 비평가는 들을 때가 있다. 모의 문제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시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독자의 눈에는 분명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의 갑갑함이 읽힌다. 그 점에서 볼 때 시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정한 '물고기가 유리벽에 자주 부딪치는 장면'은,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시적 흐름에 딱 잘 어울리는 장면이다. 결국 자신의 작품에서 남들이 들은 어떤 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완고히 말하는 코골이와 닮은 점이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 두 사례는 창작자가 지닌 의도가 비평가(독자)에게 전달되기 어렵고, 비평가(독자)의 지적이 창작자에게 수용되기 어려운 '소통의 어려움'을 겨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